

투데이 칼럼

셀프 리더쉽(Self Ledaership)

“Lead”는 말의 의미가 Listen(듣고), Explain(설명해주고), Assist(도와주고), Discuss(상의하는)는 머릿글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알아보면 리더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자극해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한 방향을 향해 전력을 다하도록 이끄는 데 있다.

그러므로 최고 리더는 우선 자신이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부하 직원도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따르게 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리더에게는 다음의 자질과 능력이 필요하다.

첫째 자신의 업무와 관련분야의 실정에 관해 잘 알아야 한다.

둘째 시대의 흐름이나 소비자의 동향 등에 관해 항상 공부하고 이해해야 한다.

셋째 리더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직원 각자의 장점과 약점,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희망과 목표 등을 알아야 한다.

넷째 이를 통해 부하직원과 함께 비전 목표, 전략과 성취감을 공유할 수 있다.

다섯째 상사와 사장을 리더하

고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여섯째 말이나 행동에 일관성이 있고 '강인함'과 '부드러움'이라는 양면을 동시에 갖춘 사람으로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실천한다.

일곱째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정당당'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더는 명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질을 의미한다. 진정한 리더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쉽게 만날 수 있으며 제때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공격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모든 일을 단순화하고 낙관적이다. 긍정적이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자이다.

우리는 직장에서 업무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는 편이 좋은 일,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문 이 능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익혀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연령대별로 나누어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미국 남가주대학교 '워런베니스' 교수는 '리더는 만들어 짓'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자기계발을 게을리 말아야 한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의지를 갖고 매일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면 누구나 신뢰를 바탕으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현신을 이끌어 내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성공한 리더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성공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상황판단능력, 판단력, 신뢰, 투명성, 적응력 등 다섯 가지를 갖추는데 게을리 하지 말자.

인간의 95%는 재능을 갖고 태어나지 못한다고 하니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자기개발에 앞장설 때 성공한 리더가 되어 삶의 보람을 누릴 수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아이도 파시즘에 반대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아이를 안은 여성이 손팻말을 들고 반미 시위를 하면서 출주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대응해 보복 관세 방침을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향해 항의 팻말 든 민주당 의원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워싱턴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는 동안 니디아 벨라스케스 민주당 하원의원(뉴욕)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항의 팻말을 들고 있다.

사설

부동산 변칙 거래

각종 부동산 세금을 덜 내려고 변칙적인 거래를 한 150여 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 탈루를 한 혐의가 있는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월 밝혔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은 유형은 모두 다섯 가지다. 먼저,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가장매매를 한 경우 등 37명이 대상이다.

사례를 보면, 서울에 있는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안 내기 위해 지방에 갖고 있던 주택 한 채를 천천에게 가짜로 팔았다. 양도일 기준 국내에 주택 1채만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후 서울의 고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큰 차익을 남긴 뒤, 천천에게 이전했던

지방의 주택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한다.

지방에 있는 토지를 판매하면서, 부실 법인을 끼워 넣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납세자도 적발됐다.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던 부실 법인에 값싼 가격으로 땅을 팔아 세금을 내지 않은 뒤, 해당 법인이 다른 곳에 땅을 비싸게 팔게 하는 식으로 위장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정비 사업인 이른바 '모아타운' 예정 지역의 도로를 싸게 산 뒤, 이를 조금씩 값에 수십 명에게 조금씩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자 18명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인 가운데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등으로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선호 지역을 위주로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판결 전망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현재가 늦어도 3월 중으로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전의 예에 비춰보면 2주 내에는 선고가 됐다. 현재가 늦어도 3월 중 전원일치 의견으로 온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탄생 자체부터 설립 목적이 헌법을 보호하고 수호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다.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의 이번 행위를 보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거나,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재판관은 없을 것이다.

만약 그런 재판관이 있다면 현재 존립의 의미가 없어지고 재판관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차 변론의 핵심은 국무총리와 국장원 1차장의 증언으로 끝난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언이지만 대통령 측에 오히려 더 불리한 증언이 돼버렸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무회의는 실제적·절차적인 흠이 있어서 개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전 차장의 경우 지난번 증언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정당한 철폐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점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를 나열 때 비상계엄 선포의 실제적 절차적 적법성, 그 다음에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국회 활동 금지나 중앙선관위 점거 봉쇄를 소추 사유별로 나열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최근 헌법 연구관 3명에 대해 화교·중국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인 특정직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